

# LG화학, '젊은 꿈 키우는 화학캠프' 개최

### 주요사업장 인근 중학생 400여명 초청

LG화학은 기아대책과 함께 서울, 여수, 대전 등 주요사업장 인근 400여명의 중학생들을 초청해 '젊은 꿈을 키우는 화학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화학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미래 과학 인재로서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5년부터 15년간 약 70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했다.

지난 16일 시작된 새해 첫 캠프는 영등포, 마곡, 파주 등 LG화학의 수도권 사업장 인근 중학생 100여명을 서울 올림픽파크텔로 초청해 2박 3일간 진행했다. 캠프는 '화학과 놀고, 화학을 꿈꾸자'를 주제로 ▲창의융합탐구 ▲ 기초과학탐구 ▲화학직업탐구 등 새롭게 개편된 다양한 화학실험 및 특강 등이 진행된다.



화학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이 태양광 충전 램프를 만들고 있다.

/LG화학

다양한 화학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유익한 강의도 진행된다. 이번 캠프에는 인기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학생들에게 영상 제작 및 어플

리케이션 활용법 등에 대해서 강의해주는 '벨류 업그레이드 특강' 시간이 마련됐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재계에 손 내민 文정부



### 기자 수첩

김재웅  
(산업부)

문재인 정부가 경제계에 손을 내밀었다. 취임한지 1년 반여만이 다. 새해가 밝자마자 재계 총수들과 만남을 갖고 꾸준히 자리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경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을 테다. 자동차산업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스스로 성장 엔진이라 칭했던 반도체 산업도 상승곡선에 힘이 꺾였다. 신산업 출항 시도는 격한 사회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취업률은 문정부의 뼈아픈 실책이다.

문 정부는 올해 경제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신년사에서 '경제'를 수없이 반복했고, 규제 혁신과 투자 지원을 언급했다. '타운홀 미팅' 등 재계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정부를 향한 쓴소리를 묵묵히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경제계 의사 반영한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경제계는 불안한

표정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문정부 약속이 말에서 그칠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당장 시행된 규제 개혁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일감몰아주기과 지배구조 개편 등 골치아픈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삼바 사태'와 '국정 농단' 등 정치 현안도 경제계를 압박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등 산업 생존권이 달린 문제에도 심드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문 정부를 취임 직후부터 적극 지원해왔다. 국내 투자를 유지하면서 일자리 확대 약속까지 했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방문 요청을 조건부로 승낙하며 압박을 좀처럼 풀지 않았다.

SK 최태원 회장은 4대 기업 총수 만행이 된 후 '화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직원들에게 체크무늬 양말을 보여주고, 문 대통령에게도 직설적인 화법으로 요구를 이어갔다.

문 정부도 화끈한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해본다. IMF 외환위기를 거쳐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 이제는 확실한 지원과 규제 완화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juk@metroseoul.co.kr

# SPC그룹 한부모가정 자녀에 4000만원 지원

SPC그룹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SPC스퀘어에서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 및 가족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SPC그룹의 '한부모 가정 자립 지원'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SPC Happy Share' 캠페인의 일환으로, '카카오 같이가치'에 사연을 소개하고 시민이 응원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하면 건당 일정금액을

적립해 대신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SPC행복한재단은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를 2018년 복지사각지대 대상으로 정해 네 차례의 모금활동을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총 2만 5천여명이 네티즌이 참여했으며,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 18가정에 총 4000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SPC그룹은 이날 'SPC스퀘어 라그릴리아' 열린 행사에 2018년 한 해 동안 지원받은 18가정의 가족들을 초청하여 점심 식사를 하고 기념품을 제공하였다. 더불어 4차 캠페



지난 16일 '한부모가정 자립 지원 기부금 전달식'에서 SPC행복한재단 및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인의 대상 가족에 대한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박인용 기자 parkju7854@

### 오늘의 운세 1월 18일 (음 12월 13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밀의 사람 실수를 덮어주면 보답을 받는다. 60년생 어느 길로 가도 목적지에 도착하는 날. 72년생 구르는 돌에 이끼가 끼지 않으니 부단한 노력이 필요. 84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다.
- 소**  49년생 가족과의 무관심이 부담스럽다. 61년생 내용보다 포장에 중요할 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73년생 머리보다 가슴으로 느껴라. 85년생 농친 고기를 안타까워 말고 내 것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 호랑이**  50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휴식이 필요. 62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 74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려우므로 조금 양보. 86년생 조연도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나 먹힘.
- 토끼**  51년생 토사구팽(虎死狗烹) 되더라도 속명이다. 63년생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일을 잘 풀리게 한다. 75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은 없는지 생각. 87년생 주변이 시끄러우니 말조심.
- 원숭이**  52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적으나 성과도 적다. 64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을 수 있으니 먹는 것에 주의. 76년생 길 떠나려는데 폭풍우가 치니 잠시 쉬어가자. 88년생 먹을 복이 많은 날이다.
- 뱀**  53년생 한발 물려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니 결단이 필요. 6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결과는 생각보다 약하다. 77년생 선봉에 나서게 되니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게 된다. 89년생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

- 말**  54년생 날새 텃밭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66년생 나비의 화려함이 애벌레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다는 걸 명심. 78년생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는다. 90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더 낫다.
- 양**  55년생 오늘이 시작하기 딱 좋은 날이다. 67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물려서라도 달래야 한다. 79년생 자신이 옳다 해도 침묵해야 한다. 91년생 파란 하늘이 그림고 비벌 언덕이 절실히 필요한 날.
- 원숭이**  56년생 지나친 관심은 나도 상대도 피곤하게 한다. 68년생 어찌 과음으로 머리는 아프고 몸은 천근만근. 80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92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한잔 술이 달래준다.
- 닭**  5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9년생 멀리서 찾아온 친구가 즐거운 소식을 가져온다. 81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불편. 93년생 지금까지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날.
- 개**  58년생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니 교만해질까 우려. 70년생 어느 길도 물어서 가야 실수가 없는 날. 82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94년생 문서운이 있으니 호랑이띠의 도움으로 성사.
- 돼지**  59년생 배우자 탓이 아니라 내 탓. 71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마음이 좌불안석 이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83년생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95년생 스스로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준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6		9	
		7						
3	1		6				4	
		6		8	4			
			2	7				6
					1	3		
8			9		5		3	
		5				9	1	
9			3					4

							4	
	1		6					3
2		5		8			1	
	3		7				2	1
		4					8	
5				6				
4			5	3				2
		7		2		9		
			1		4			7

스도쿠 정답								
4	9	5	8	1	2	7	6	3
8	1	6	9	2	7	5	3	4
2	3	7	5	6	1	9	8	4
3	2	1	4	9	8	6	5	7
9	5	8	6	7	3	4	2	1
1	6	7	3	5	9	2	8	4
5	7	2	4	6	8	1	9	3
7	4	3	1	8	9	5	6	2
6	8	9	2	4	3	1	7	5

문제 제공= 보너스



# 김상회의四季

### 누구를 탓하라

지난 13일은 음력12월 8일 성도재일(成道齋日)이었다. 대승불교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나라의 불가에서는 석가세존이 6년의 설산 고행수도 후에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라 하여 성도재일로 칭하며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태국이나 미얀마 등 남방불교에서는 한 겨울이 아닌 남방의 여름이 시작하는 때라고 여겨지는 4월말이나 5월초를 '-vesakha)라 하여 성도재일로 여기고 있다. '베사카(vesakha)의 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인데 이 베사카의 보름이라는 시기는 대략 5월 초이기 때문이다. 남방불교와 대승불교권에서 이처럼 성도재일에 대한 날짜의 정립이 다른 이유를 필자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다만 북방불교로서 대승불교권인 우리나라는 중국의 선가에서 송나라 때 12월 8일을 성도재일로 의견을 모아 성도회를 행한 전통을 받아들여 한국의 불가에서는 이 날을 성도재일로 기념하여 철야기도 등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북방이든 남방이든 석가탄신일 못지않게 성도재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큰 날로 기리고 있다. 불교를 국교로 하고 있는 남방 불교국가들은 부처님 탄신일과 성도재일이 근접한 관계로 범법자들의 사면조치까지 행할 정도로 경사스러운 날로 기린다. '성도'란 말 그대로 도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석가세존께서 깨달으신 진여(眞如)의 이치는 원래 없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현상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봄으로써 존재의 실상 즉 만물과 현상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생과 사를 뛰어 넘은 무생법인을 증득하셨다. 해탈이라 함은 번뇌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며 열반이라 함은 번뇌의 불길기 꺼졌음을 말한다. 번뇌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탐진치 삼독을 의미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불가적 표현에 의하면 욕계를 의미한다. 욕계는 탐진치의 메카니즘으로 움직이는 세계다. 그러니 어찌 욕계 속에 살면서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겠는가. 진흙 속에서 청정한 연꽃이 피어나듯 깨달음이란 세속의 혼탁함이 있기에 얻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을 탓하지 않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12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227호